

러시아어의 곡용에서 어미 이형태의 분포

최 성 호*

1. 들어가기

곡용(曲用, sklonenie, declension)은 전통적으로 명사 어휘소의 곡용식(declensional pattern) 선택이라는 시각에서 기술되어 왔다. 하나의 명사 어휘가 문장내의 특정 통사환경에 일치하는 형태-통사자질소(morphosyntactic property; 앞으로는 단순히 “자질소”로 지칭)를 할당받아, 자신의 어휘형태(lexical representation, 앞으로는 “어휘형”으로 지칭)를 그 자질소에 대응하는 곡용형태(inflected word-form, 앞으로는 “곡용형”으로 지칭)로 변모하는 것을 곡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떤 특정 명사어휘소의 곡용식이란 명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자질소에 대응하는 곡용어미형(declensional exponent)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러시아어 명사곡용은 격(case)과 수(number)의 문법범주(정확히는 굴절범주inflectional category)에 속하는 자질소(6개의 격자질소와 2개의 수자질소)가 명사곡용형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휘소 VODA¹⁾는 (1a)에서와 같은 곡용식을 가지며, 이에 따라 (1b)와 같은 곡용 패러다임(declensional paradigm)을 형성한다.

(1)	a. 곡용식		b. 곡용 패러다임	
	단수	복수	단수형	복수형
주격	-a	-i	vod-a	vod-i
대격	-u	-i	vod-u	vod-i
생격	-i	-∅	vod-i	vod-∅

*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어휘소는 대문자로 문자전사(transliteration)하고, 어휘소의 어휘형만을 표상하고자 할 때에는 / /의 음소표기(phonemic notation)로 적고, 곡용된 단어는 이탤릭체로 적기로 한다. 즉, ‘숙모’를 의미하는 어휘소는 TETJA로 표기하고, 그 어휘형은 /t'ot'a/로, 그 곡용된 단어는, 단수주격 t'ot'a, 단수대격 t'ot'u, 단수생격 t'ot'i 등으로 표기한다.

처격	-e	-ax	vod-e	vod-ax
여격	-e	-am	vod-e	vod-am
조격	-oj	-am'i	vod-oj	vod-am'i

c. 곡용류: {VODA, SESTRA, MUŽČINA, SIROTA, etc.}

러시아어에서는, 여타의 다른 굴절어에서도 그렇듯이, 자질소는 통합적으로 (cumulatively)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자질소에 하나의 어미형이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상이한 범주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질소가 통합해서 하나의 어미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격'이라는 자질소와 '단수'라는 자질소는 통합되어, 명사어휘소 VODA의 어간에 하나의 어미형 -u로 실현된다(즉, vod-u). 이러한 '자질소복합체-곡용어미형'의 쌍들의 집합을 곡용식이라고 한다면, (1a)의 곡용식을 가지는 어휘부류 (1c)처럼, 특정 곡용식을 가지는 어휘들의 집합을 곡용류(declension class)라 부를 수 있다. 곡용에 관한 이러한 전통적인 기술은 원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정된 곡용식에 어떠한 곡용류가 대응되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Švedova et al. 1970, Zaliznjak 1980, RG 1980, Wurzel 1984, Carstairs 1987, Corbett 1991, Halle 1994, Arnoff 1994, Carstairs-McCarthy 1994, Timberlake 2004 등 참고).

본 연구는 이처럼 곡용 패러다임 전체를 근간으로 하여 설정된 곡용식을 어떠한 어휘들이 선택하는가 하는 어휘선택적 접근방법 대신에, 곡용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개개의 자질소복합체들을 실현하는 (변)이형태들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하는 이형태 분포의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²⁾ 개별 자질소복합체들이 여러 개의 실현형(즉, 변이형-접사)을 가질 때, 이들의 분포를 기술하는 것이야말로 어미이형태를 다루는 굴절형태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포적 측면에서 이형태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인

2)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론적 분포주의"의 기술적, 설명적 타당성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분포우선적 접근방법은 어휘우선적 접근방법이 낳을 수 있는, 어미변이체의 분포적 일반화에 대한 기술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나마 지적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에서 단수격들의 이형태 분포와 복수격들의 이형태 분포는 그 분포의 요인, 구조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분포적 차이에 대한 일반화는 어휘 우선적 접근방법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다.

이유는 전통적 어휘선택적 접근방식의 가정처럼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자질소 복합체들 모두가 항상 동일한 분포를 이룬다고 우리는 선협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분포의 동일성 여부는 경험적 분석의 결과로 획득되는 것이지, 이론적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3장 참고).

이러한 시각에서 다루게 될 러시아어 곡용형태론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그 주된 논제로 다루게 될 것이다. 첫째, 곡용어미형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 부연하면,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다수로 존재할 때, 요인들 사이에는 계층적 포함관계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2장 참고). 둘째, 러시아어 명사 곡용의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어온 곡용류의 자의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2장의 논의 결과 부각되는 분포적 요인 중 그 계층적 위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를 차지하는 소위 “곡용류”라는 요인은, 새롭게 제안된 어휘형(lexical form)에 의해 특성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동기화된 요인임을 주장한다(3장 참고). 마지막으로, 성(gender) 범주의 이중성을 다룰 것이다. 본고는 성범주의 역할이 명사와 형용사에서 다르다는 점을 논증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된 “일치류(soglasovatel'nyj klass)”의 부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4장 참고).

2. 분포적 요인: 그 계층적 관계

서론에서 간략하게 지적했듯이, 이형태 분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분포상 관여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분포적 요인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 유형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1. 요인의 유형론

곡용어미 이형태의 분포적 요인은 크게 어휘적 요인과 비어휘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휘적 요인이란 이형태의 출현조건이 어휘소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 기술되는 요인이다. 어휘소의 어휘적 특성이란, 어휘소가 자의적으로 혹은 어휘규칙(lexical rule)에 의해서 할당받은 특성으로, 첫째, 어휘의 의미적

특성, 둘째, 음운적 특성, 셋째, 형태음운적 특성 등을 포괄하는 특성이다. 예를 들면, 활물성(animacy)의 의미는 개별 어휘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 예측되는 어휘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 등은 개별 어휘가 자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운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휘소의 어간이라는 굴절형태론적으로 유의미한 단위가 연자음성(sharpening)이라는 변별적 자질을 어간말 자음에서 가지는지 등의 여부는 어휘소의 형태음운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들이 이형태 분포의 조건으로 기능할 때, 어휘적 (분포)요인의 자격을 가진다.

한편, 비어휘적 요인이란 이형태의 출현이 특정 통사적 환경, 특정 화용-담화적 사용맥락 등에 의해 조건화될 때의 요인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체코어 명사 곡용에서 대부분의 남성명사의 경우, 단수여격과 단수처격에서 2개의 이형태를 보이는데, 그 선택 요인은 해당 명사의 통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개 이상의 남성명사가 하나의 구를 형성하고, 그 구가 단수여격 또는 단수처격의 자질소를 할당받았을 때, 해당 구의 마지막 위치에 출현하는 명사는 *-ovi*, 그 앞에 출현하는 모든 명사는 *-u*의 어미형을 취한다(가령, *Pan-u Jan-u Novák-ovi* ‘Jan Novák 씨에게’(Janda 1996 참고)).

화용-담화적 요인의 예로 폴란드어 복수주격을 들 수 있는데, 남성인물명사(“virile nouns”)의 복수주격 곡용어미형은 여타의 남성명사의 곡용어미형(이 경우 복수대격과 동형syncretism)과 일관성 있게 구별된다(즉, *student-i* 학생; 남성; 복수주격 vs. *nos-y* 코; 남성; 복수주격(복수대격) 등). 그러나, ‘경멸, 멸시’의 담화-화용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을 때의 남성인물명사의 복수주격은 비-인물명사의 복수대격 곡용어미형인 *-y*와 동형을 보인다(즉, *student-y* 복수주격; 경멸(Swan 2002 참고)).

비어휘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이형태 분포의 특징은 그러한 분포가 특정 어휘류에 국한된다는 사실이다. 체코어의 *-u* vs. *-ovi*의 대립은 오로지 남성명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폴란드어의 ‘경멸’의 특별곡용어미형은 남성인물명사에 한정되어 분포되어 있다. 후술되겠지만, 러시아어에서 문체적으로 유표적인 단수조격 곡용어미형 *-uju*는 제2곡용류에 국한되어 있다(가령, *žen-uju* vs. *žen-uj*). 만약 이러한 이형태들이 분포상 국부적이지 않다면, 즉, 이들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명사에 실현된다면, 이들은 이미 독립적인 격의 지위를 획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그들의 출현을 조건화하는 비어휘적 요인은 이제는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자질소로서,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다른 모

든 독립적 격처럼, 모든 명사에 보편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러시아어에서의 소위 제2생격, 제2처격이 독립된 격인지의 논쟁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명히, 이들 두 격이 실현되는 장소는 국부적이다. 이들은 수(number), 품사(parts-of-speech), 그리고 어휘류에서 제한적이다. 즉, 첫째 이들은 단수에서만 나타나고, 둘째 형용사 곡용에서는 표현되지 않으며, 셋째, 어휘적으로 제한적이어서(즉, 보편적이지 않아서), 제2생격은 남성명사 중 ‘물질’을 표현하는 명사에만 나타나고(예: *šokolad-u* 초콜렛, *čaj-u* 차 등), 제2처격은 어휘적으로 명시되는 약간의 “제1곡용류” 명사와 “제3곡용류” 명사에만 나타난다(예: *sad-ú* 정원; 제1곡용류, *step’-í* 초원; 제3곡용류 등).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본고는 이들 곡용어미형을 독립적인 격의 실현으로 보지 않고, 각각 생격과 처격의 이형태중의 하나로 간주한다.³⁾

2.2. 러시아어 명사 곡용

러시아어의 명사 곡용을 다룰 때, 단수에서의 격 이형태 분포와 복수에서의 격 이형태 분포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문제는 이형태 분포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분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⁴⁾

3)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이형태”들이 특정의미, 즉 생격이형태 *-u*는 소위 ‘부분성(partitivity)’의 의미를, 처격이형태 *-ú*는 ‘순수한 장소’의 의미를 보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이다. 기실 이형태들이란 의미는 동일하고, 그 분포만 상보적으로 차이 나는 형태들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의미는, 후술되겠지만, 이들 곡용어미형이 직접적으로 표현(즉, 상징symbolization)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즉, 이들 이형태들은 이러한 통사환경적 의미에 의해서 조건화된, 즉, 비어휘적 요인에 의해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Stankiewicz(1968), Švedova의(1970), Zaliznjak (1980), Barnetová의(1979), RG(1980) 등의 논저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본고에서 논의할 대상에서 형용사어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성(family name)을 지칭하는 명사 등은 제외된다. 전자는 어휘형의 유표성, 후자는 의미의 유표성으로 인해 곡용에 있어 예외적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2.2.1. 단수 곡용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 곡용시 아래와 같은 이형태를 보인다.

(2) 단수곡용

격	곡용어미형			예
주격	∅	o	a	stol-∅, kost'-∅, p'is'm-o, vod-a
대격	∅	o	a u	stol-∅, kost'-∅, brat-a, p'is'm-o, vod-u
생격	a	i	u	stol-a, kost'-i, brat-a, p'is'm-a, vod-i
처격	e	i	u	stol-e, kost'-i, brat-e, p'is'm-e, vod-e
여격	u	e	i	stol-u, kost'-i, brat-u, p'is'm-u, vod-e
조격	om	oj	oju ju	stol-om, kost'-ju, p'is'm-om, vod-oj, žen-oju

2.2.1.1. 단수주격 본고에서는 어휘형을 단수주격형과 동일하게 표상하기 때문에, 단수주격 곡용어미형들의 분포는 어휘소의 음운적 특징으로 기술된다고 본다.⁵⁾ 다시 말하면, 단수주격 -∅는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어휘소에 분포하고, -o는 어휘형이 -o로 끝나는 어휘소에, -a는 어휘형이 -a로 끝나는 어휘소에 분포한다.

2.2.1.2. 단수대격 우선, 단수대격 곡용어미형 -u가 분포하는 어휘들(예를 들면 KNIGA, ŽENA, MUŽČINA, SIROTA, SUD'JA 등)은 어휘형이 -a로 끝나는 명사들로 특성화된다. 이들 명사류들을 성(gender)으로 특성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MUŽČINA처럼 남성명사도 -u를 취하고, SIROTA처럼 양성(common gender)명사도 -u를 취하기 때문이다.

곡용어미형 -a를 취하는 어휘들(예: /brat/, /gost'/, /slon/ 등)은 어휘형이 자음이나 -o로 끝나는 남성명사 중 활물성 명사에 국한된다(다음 단락 참고).

곡용어미형 -o를 취하는 어휘들(예: /p'is'mo/, /mor'o/ 등)은 어휘형이 -o로 끝나는 중성명사들이다. 여기에서 중성명사로 한정하는 것은 어휘형이 -o로 끝나는 남성활물성 명사(예: /bolčičšo/ 늑대; 지대형, /podmaster'jo/ 견습생 등)는 -a를 취하기 때문이다.⁶⁾

마지막으로 -∅는 자음으로 끝나는 모든 남성명사 중 불활물성명사(예: /stol/,

5)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논문(Choi Ms)을 참고.

6) imja 유형의 중성명사는 단수대격 곡용어미로 -a를 취한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어에서 모든 중성명사의 단수대격형은 단수주격형과 동형(syncretism)이다.

/zakon/ 등)와 자음으로 끝나는 모든 여성명사⁷⁾(예: /kost'/, /'ubov'/ 등; 그리고 유일한 남성명사 /put'/)에 분포한다.

이상과 같이, 단수대격 이형태의 분포는 어휘소의 음운적 특성, 즉 어휘형이 그 주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위 요인 외에 성과 활물성 등의 요인이 하위적으로 관여한다.

2.2.1.3. 단수생격 우선, 단수생격 곡용어미형 -i는 어휘형이 -a로 끝나는 모든 명사와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모든 여성명사에 분포한다 (예: /kniga/ knig-i, /kost'/ kost'-i 등). 곡용어미형 -a는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를 제외한) 모든 명사와 -o로 끝나는 모든 명사에 분포한다 (예: /stol/ stol-a, /gost'/ gost'-a, /mor'o/ mor'-a, 등).

곡용어미형 -u는 자음으로 끝나고, ‘물질’을 의미하는 약 60여개의 남성 명사(예: BENZIN, GAZ, SUP, ČAJ, KON'JAK 등)와 20여개의 추상명사(예: GOLOD, KRIK NAROD, STRAX 등)에 한해서 통사적으로 ‘부분성(partitivity)’이 표현되는 맥락에서(예: *stakan čaju, mnogo narodu* 등) 출현한다. 따라서, 전술했던 바와 같이, -u의 출현은 비어휘적 요인에 의해 조건화되면서, 어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수생격 이형태들의 분포 역시 어휘형에 의거 기술되고, 부차적으로 성범주, 어휘의미자질(‘물질’)이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2.2.1.4. 단수처격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가 -i를 취할 뿐,⁸⁾ 여타의 모든 다른 명사는 -e를 선택한다. 자음으로 끝나고 어간강세를 가진 20여개의 여성명사(예: /dal'/, /step'/ 등)의 경우에는, 강세이동이 발생하여

7)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중 여성명사”라는 진술과 “여성명사 중에서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라는 진술은 그 외연이 동일하다. 그러나, 남성명사의 경우, -a로 끝나는 남성명사도 -a로 끝나는 여성명사와 동일한 곡용어미형들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어휘형이 성보다 더 상위의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의 진술을 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8) 어간이 -ij로 끝나는 모든 명사의 경우(예: /gen'ij/, /zdan'ijo/, /laboratorija/ 등), 처격 어미로 -i를 취한다고 기술할 수도 있지만(예: *o genij-i, v zdanij-i, v laboratorij-i* 등), 이 어미에 강세가 놓이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비강세 /e/와 /i/는 동일한 음성형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들의 단수처격 어미형도 무표의 -e로 실현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o genij-e, v zdanij-e, v laboratorij-e* 등. 끼릴 표기에 나타나는 и는 /e/의 일종의 표기 관행으로 본다 (예: *о гении, в здании, в лаборатории*).

곡용어미형에 강세가 떨어진다.⁹⁾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명사 중 어휘적으로 명시된 약간의 일음절 어간 명사의 경우, 단수처격 어미로 *-u*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순수히 장소(또는 시간)를 표현하는 통사맥락에서 사용된다 (예: *u sadú* 정원에서 vs. *o sade* 정원에 관해, Worth 1984 참고). 이 경우에도, 어간 강세를 가진 명사의 경우엔, 강세이동으로 곡용어미형에 강세가 놓인다.

2.2.1.5. 단수여격 곡용어미형 *-i*는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에 분포하고, *-e*는 어휘형이 *-a*로 끝나는 명사, *-u*는 그 이외의 모든 명사, 즉,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를 제외하고) 모든 명사와 *-o*로 끝나는 명사에 분포한다.

2.2.1.6. 단수조격 곡용어미형 *-ju*는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에 분포하고, *-oj*는 어휘형이 *-a*로 끝나는 명사, *-om*은 그 이외의 모든 명사, 즉,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를 제외하고) 모든 명사와 모든 중성명사에 분포한다.

곡용어미형 *-aju*는 *-oj*의 문체론적 변이형이다.

단수 처격, 여격, 조격 등에서의 곡용어미형들의 분포 역시 어휘형에 의해서 1차적으로 기술된다. 성, 어휘의미, 통사적 맥락의미, 문체적 동기 등은 단지 2차적 의의를 가질 뿐이다.

2.2.1.7. 본 절의 논의는 요인들 사이에 계층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단수주격형을 어휘형으로 채택하고 있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단수주격에서의 이형태 분포는 그대로 어휘형에 의해 결정됨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단수대격형은 어휘형에 의해 1차적으로 그 분포가 결정된다. 그러나, 자음으로 끝나는 어휘형("C(onsonant)-어휘형"으로 지칭)을 가지는 명사 중 여성명사는 \emptyset 를 보이고, 남성명사는 재차 활물성 요인에 의해, 즉, 활물성 명사이면 단수생격과, 비활물성 명사이면, 단수주격과 동형을 이룬다. 이러한 계층적 관계를 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일 수 있다.

- (3) 단수대격형 분포요인들의 계층적 관계
어휘형 > 성 > 활물성

9) 엄격히 말하면, 강세이동은 어간변이(stem allomorphy)의 문제이지 어미변이(desinence allomorphy)의 문제는 아니다.

단수생격의 경우 역시 어휘형에 의해 1차적으로 구분된다. 2차적으로 C-어휘형을 가지는 명사 중 남성명사와 o-어휘형 명사는 -a를 취하며, 다시 3차적으로 C-어휘형의 남성명사에 한하여 ‘물질’을 의미하는, 어휘적으로 명세화된 약간의 명사들인 경우, ‘부분성’이라는 통사적 맥락에 의해 조건화된 요인(즉, 비어휘적 통사적 요인)에 의해 -u를 취하게 된다. 계층적 관계는,

- (4) 단수생격형 분포요인들의 계층적 관계
어휘형 > 성 > ‘부분성’

단수처격의 경우도 유사한 계층적 양상을 보인다. 우선 C-어휘형을 가지는 명사중 여성명사에 -i가 분포하고, 나머지 모든 명사에 -e가 분포한다. 다만 남성명사 중 ‘장소성’이라는 비어휘적 요인에 의해 -e대신에 -u가 선택된다.

- (5) 단수처격형 분포요인들의 계층적 관계
어휘형 > 성 > ‘장소성’

단수여격과 단수조격 공히, 어휘형과 성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a-어휘형은 단수조격에서 문체적 요인에 의한 이형태를 가진다.

- (6) 단수여격/조격의 분포요인들의 계층적 관계.
어휘형 > 성 (> ‘문체’)

이상의 논의의 결과, 우리는 어휘형과 성 등의 어휘적 요인이 ‘부분성’, ‘장소성’, ‘문체적 고려’ 등의 비어휘적 요인보다 계층상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러시아어 명사 곡용의 이형태 분포는 주로 어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2.2.2. 복수곡용

본 절에서는 복수곡용에서의 이형태 분포에 대해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복수곡용은 단수곡용과 다른 분포요인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복수곡용을 단일한 곡용식으로 기술할 수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복수곡용에서 보이는 개별적 격들의 이형태는 다음과 같다.

(7)	복수곡용
격	곡용어미형
주격	e, a, i
대격	a, i, ov, ej, ∅
생격	ov, ej, ∅
처격	ax
여격	am
조격	am'i, m'i

2.2.2.1. 복수주격 곡용어미형 *-e*는 특정 민족명, 특정 도시인명 등을 의미하면서 (대체로) 단수화(singulative) 파생접사({(an)-in})가 통합된 남성명사에 국한되어 출현한다 (예: /angl'ičan'in/; 또한, /graždan'in/ 시민, /krest'ijan'in/ 농민, /xr'ist'ian'in/ 기독교인). 곡용어미형 *-a*는 모든 중성명사에 분포한다.¹⁰⁾ 또한 어간 첫음절에 강세를 가지는 남성명사(예: /béreg/, /nómer/, /póezd/ 등; 또한 /proféssor/, /učítel'/ 등 약간의 남성명사)에서도 곡용어미형 *-a*가 출현한다.¹¹⁾ 그 밖의 모든 명사는 *-i*를 취한다.

복수주격의 이형태 분포가 1차적으로 성(gender)에 의해 결정됨이 주목된다. 이것은 단수곡용에서의 분포는 어휘형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대비된다. 단수에서 a-어휘형을 가지는 여성명사들과 C-어휘형이면서 여성인 명사들은 서로 다른 어미패턴을 보이는 반면(즉, /kn'iga/와 /kost'/), 복수에서 이들은 모두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주격어미형을 보인다(kn'ig-i와

10) o-어휘형이라고 기술하지 않는 이유는 어휘형이 -o로 끝나는 중성명사 뿐만 아니라, 단수곡용에서 C-어휘형의 여성명사처럼 곡용하는 IMJA-유형 중성명사 역시도 곡용어미형 *-a*를 취하기 때문이다; 예: /okno/ okn-a 복수주격, /im'a/ im'on-a 복수주격.

11) 강세가 어간에서 어미로 이동하는 강세변이는 복수주격에 의해 조건화된 것이 아니고, 복수 자체에 의해 조건화된 것이다. 왜냐하면 단수의 모든 격에서 어간 첫음절에 떨어지는 강세가 복수의 모든 격에서 어미 첫음절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주격의 어미가 *-á*의 강세어미를 갖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잘못된 진술이다. 이러한 강세이동을 가지는 명사들에 있어서 강세 이동은 복수를 지표(index)한다는 식의 진술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적 기능이 어간이 형태의 일부로서 강세이동(즉, 어간강세 → 어간 비강세, 즉, 어미강세)이 보이는 “문법(의미)적” 기능(Worth 1984 참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kost'-i).

2.2.2.2. 복수대격 복수대격은 다양한 곡용어미형에 의해 실현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복수대격이 보이는 동형성 때문이다. 즉, 복수대격 곡용어미형은 활물성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활물성 명사는 복수생격 어미형과 동형이고, 불활물성 명사는 복수주격 어미형과 동형이다 (예: /žona/ 아내 *žon-ø* (복수대격 혹은 복수생격), /dom/ 집 *dom-a* (복수대격 혹은 복수주격), /slovo/ 단어 *slov-a* (복수대격 혹은 복수주격) 등).

복수대격의 곡용어미 선택이 전적으로 활물성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역시 단수대격에서의 곡용어미 선택과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사실이다. 단수대격에서의 활물성 요인은 오로지 제1곡용류 내의 남성명사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čudov'iščo/와 같은 중성명사의 경우, 단수대격은 단수주격과 동형(*čudov'išč-o*)이지만, 복수대격은 복수생격과 동형(*čudov'išč-ø*)인 것은 동일한 단어라도 단수와 복수에서의 곡용식 요인이 상이함을 드러내 주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사실이다.

직업, 사회적 역할 등을 의미하며, 활물체를 지시하는 명사들의 경우(예: SOLDAT 군인, GOST' 손님, PROFESSOR 교수, PREDSEDATEL' 의장 등), 전치사가 동반되는 특정 통사적 환경에서(예: *On pošel v soldaty* '그는 군인이 되었다', *Vybrali ego v predsedateli* '그는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등), 불활물성 명사로 취급되어 복수주격형과 동형을 이룬다. 소위 '제2처격', '제2생격' 등의 경우에서처럼(2.2.1 참고), 특정 통사적 요인에 의해 조건화된 격형태 선택의 예이다.

2.2.2.3. 복수생격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복수생격의 곡용어미형의 분포는 어휘형의 음운적 속성에 의해 기술된다. C-어휘형이면 *-ov*나 *-ej*의 곡용어미형을 취하고, V-어휘형(모음으로 끝나는 어휘형)이면 *-ø*의 곡용어미형을 취한다(Jakobson 1957/1971, Stankiewicz 1968, Janda 1996 등). 전자의 경우, *-ov*와 *-ej*의 선택은 어휘소의 어간말 자음의 연음성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어간말 자음이 연자음이거나 기능적 연자음(*š ž č*)일 때는 *-ej*(예: /gost/ *gost-ej*, /kost'/ *kost-ej*, /vrač/ *vrač-ej*, /noč/ *noč-ej* 등), 그 외의 자음일 때에는 *-ov*(예: /stol/ *stol-ov*, /konec/ *konc-ov*, /muzej/ *muzej-ov* 등)가 선택된다.

복수생격의 이형태 분포는 따라서 어휘형의 음운적 속성과 형태음운적 어

간말 자음의 음운자질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2.2.4. 복수처격, 여격, 조격 이들 세 격은 이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복수 조격의 곡용어미형 *-m'i*는 고형(古形)으로 점차 그 빈도수가 낮아지고 있다 (예: /mat'/ *mater'-m'i*; 그러나, *mater'-am'i*도 가능).

2.2.2.5. 요약 러시아어 명사의 복수곡용은, 따라서, 단수곡용과 전혀 다른 분포요인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다. 복수주격에서의 1차적 분포요인은 성이고, 대격에서의 동형성은 활물성에 의해 결정되고, 생격에서는 어휘형의 음운적, 형태음운적 속성이 그 분포요인으로 기능한다. 분포요인의 계층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8) 복수에서의 분포요인의 계층적 관계
- a. 복수주격
 - 성 > {어휘형에서의 강제위치, 어휘의미}
 - b. 복수대격
 - 활물성
 - c. 복수생격
 - 어휘형의 음운특성 > 어간의 형태음운적 특성

2.3. 결론

2장에서 논의는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곡용에서 곡용어미의 이형태의 분포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어휘형의 음운적 특성이라는 점을 드러내 보인다. 다시 말하면, 단수에서 모든 격의 이형태들의 분포는 어휘형이 어떤 음운으로 종결되는가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복수곡용에서의 격어미형의 분포는 비단 어휘형의 음운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을뿐더러, 각각의 격의 이형태들의 분포가 일관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논의된 분포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러시아어 명사

12) Corbett(1991), Andersen(1996) 등에서는 러시아어 및 우크라이나어 명사곡용에 있어서 곡용류의 설정은 자의적 어휘명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바, 이것은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휘형에 의한 곡용식의 동기화라는 견해와 뚜렷하게 상치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어휘형의 “어간 표상론”과 “굴절형(단수 주격형)표상론”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덧붙인다(3.3절 참고).

곡용을 위해 전통적으로 설정되어 온 “곡용식”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3. 곡용식: 분포의 동일성과 동기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굴절형태론에 대한 전통적인 기술적 시각은 개별 어휘가 어떠한 격-어미형 집합(즉, 곡용식)을 선택하는가 하는 어휘선택적 시각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자연언어에서 모든 어휘가 그 자신에게만 특유한 격-어미형 집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즉 서로 다른 격-어미형 집합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많은 어휘들이 동일한 격-어미형 집합을 공유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기술의 특징은 어떤 한 어휘가 모든 가능한 자질소들(러시아어 명사곡용에서는 12개의 자질소복합체들이 존재)에서 어떤 어미형 집합을 취하는가를 관찰하고, 그 어휘와 같은 어미형 집합을 취하는 어휘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휘류(즉, 곡용류declension class)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곡용어미 이형태들의 분포라는 시각에서 보면, 모든 가능한 자질소복합체들의 실현이형태들이 동일한 분포 요인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술적 태도에는 잘못된 일반화의 도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굴절형태론에 대한 일반화는 하나의 자질소(복합체)의 이형태들의 분포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도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이형태들이 보이는 분포요인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곡용식의 설정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곡용류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켜 보자.

3.1. 단수곡용

단수곡용에서 모든 격들의 이형태의 분포는 1차적으로 어휘형이라는 동일한 요인에 의해 기술된다고 지적했다. 부연하면, 단수곡용에서 각각의 자질소에 대응하는 특정 곡용어미형은 동일한 어휘형을 공유하는 어휘들에 분포한

다. 이 진술을 어휘소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어휘형을 공유하는 어휘소들의 부류는 특정 곡용어미들의 집합을 선택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이는 단수곡용에 곡용식이 존재하고, 각각의 곡용식에 대응하는, 어휘형에 의해 정의되는, 곡용류를 설정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2장의 단수곡용의 이형태 분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곡용식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9) 러시아어 단수곡용

	C-어휘형	o-어휘형	a-어휘형	C-어휘형 여성
주격	∅	o	a	∅
대격	∅~a	o~a	u	∅
생격	a~u	a	i	i
처격	e~u	e	e	i
여격	u	u	e	i
조격	om	om	oj~oju	ju

먼저, a-어휘형을 가지는 곡용류를 “II-곡용류”, II-곡용류가 보이는 곡용식을 “II-곡용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II-곡용류는 단수곡용에서 II-곡용식을 선택한다는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분포의 시각에서 기술한다면, II-곡용식은 II-곡용류의 명사들에 분포한다. 이와 유사하게,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어휘들 중 여성인 어휘들을 III-곡용류라고 한다면, III-곡용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III-곡용식을 선택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한편, o-어휘형을 가지는 명사들과 (III-곡용류 명사들을 제외한) C-어휘형을 가지는 명사들은 주격과 대격을 제외하는 여타의 격들에서는 격어미를 공유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두 어휘형의 명사들은 하나의 어휘류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들을 I-곡용류라 지칭하면, 우리는 I-곡용류는 I-곡용식을 선택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곡용어미형들에 이질적인 어미형의 출현은 특별한 요인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격에서 -u의 출현은 ‘부분성’이라는 통사적 요인에 의해, 처격에서 -u의 출현은 ‘장소성’이라는 통사적 요인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주격어미형 -o vs. -∅의 출현은, 정의에 의해서, 어휘형에 의해 결정되고, 대격에서 동형성(syncretism)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gender)과 활물성(animacy)이다. 남성 활물체 명사는 생격과 동형이며, 그 외의 명사는 주격과 동형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시 곡용식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0) 러시아어 단수곡용(완결)

명칭	I-곡용류		II-곡용류	III-곡용류
정의	C-어휘형	o-어휘형	a-어휘형	C-어휘형 & 여성
주격	∅	o	a	∅
대격	=주격~생격	=주격	u	=주격
생격		a~u	i	i
처격		e~u	e	i
여격		u	e	i
조격		om	oj~oju	ju

(10)의 표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 명사곡용에 관한 일반화를 표현한다.

①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곡용은 어휘형에 의해 정의되는 곡용류를 제1차적 분포요인으로 갖는다. 이것은 단수곡용시 각각의 격들의 이형태 분포는 곡용류라는 동일한 요인에 의거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② II-곡용식은 II-곡용류에 분포하며, 단수조격의 경우, 곡용어미형 *-oju*는 II-곡용류 명사에 한하여, 문체적 요인에 의해 동기화된다. 즉, 문체적 요인은 곡용류 요인의 하위 요인이다.

③ 러시아어의 가장 무표적인 곡용식은 I-곡용식이다. 본 곡용식이 분포하는 I-곡용류는 특별히 정의되지 않지만,¹³⁾ 몇 개의 격에서 보이는 이형태들의 분포는 특별한 하위요인들, 즉, 성, 활물성 등의 어휘적 요인과, 부분성, 장소성 등의 비어휘적 요인에 의해 동기화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I-곡용류의 어휘들에서만 작동하는 하위요인들인 것이다.

이렇듯, 각 격을 실현하는 이형태들의 분포를 분석하는 우리의 방법론은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곡용에서 이형태들의 분포는 곡용류라는 단일한 제1차적 요인에 의해 공변이(covariation)하는 곡용식을 가지며, 각각의 곡용식은 그 자체로 독특한 하위요인들에 의해서 변이하는 이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곡용식을 가진다는 굴절형태론적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곡용식 존재를 선형적으로 가정

13) 왜냐하면, II-곡용류와 I-곡용류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Panini 원리라고도 불리는 무표화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하는 어휘선택적 접근보다 기술적 타당성에 있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3.2. 복수곡용

러시아어 복수곡용에서도 단수곡용에서처럼 곡용류가 제1차적 분포 요인으로 기능할까? 곡용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지만, 러시아어 명사곡용을 다루는 대다수의 논저(RG 1980, Švedova의 1970, Corbett 1982, Timberlake 2004 등)에서 단일한 곡용류 요인이 단수와 복수의 어미선택을 지배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곡용의 이형태 분포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어 복수곡용의 경우, 주격, 대격, 생격에서 보이는 이형태의 분포는 단수곡용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그러한 곡용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2.2.2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복수곡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1) 러시아어 복수곡용

격	격어미형		
주격	[중성]	[비-중성]	
		[단수화 & 남성]	[어간강세 & 남성] 나머지 모두
	a	e	á i
대격	[활물체]	[불활물체]	
	=생격	=주격	
생격	[V-어휘형]	[C-어휘형]	
		[어간-연자음]	[어간-경자음]
	∅	ej	ov
치격		ax	
여격		am	
조격		am'i(~m'i)	

위의 복수곡용에 관한 일반화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인다. 첫째, 러시아어 명사의 복수곡용에서 각각의 격은 자신에게 특유한 분포요인에 의해 이형태를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분포요인이 단일하지 못하다. 이것은 복수곡용에서는 단수에서와 같은 곡용식을 설정할 수 없음을 보인다. 둘째, 위의 사실로부터 자명하게, 복수곡용에서는 단수에서 설정된 곡용류를 분포요인으로 설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셋째, 복수 곡용에서 이형태를 보

이는 모든 격들에서 어휘적 요인들간의 계층성은 발견되지만, 비어휘적 요인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곡용이형태의 분포는 어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무표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사실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무표의 단수곡용에서는 비어휘적 요인에 의한 이형태가 발견되지만, 유표의 복수곡용에서는 비어휘적 요인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⁴⁾

3.3. 이형태의 동기성

지금까지의 논의는 러시아어 명사곡용에서 이형태의 분포는 자의적인 어휘적 명세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휘적, 비어휘적 특성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음을 명료하게 보인다.

사실, 러시아어 곡용이형태가 동기화되어 있다는 주장은 어휘소의 음운적 표상을 단수주격형의 음운표상과 동일하게 설정한다는 제안으로 인해 가능한 주장이다. 만약, “어휘형=단수주격형”의 가정이 부재하다면, 즉, “어휘형=어간”이라는 전통적인 가정 하에서는 명사곡용 이형태의 분포는 자의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¹⁵⁾ 본고에서는 전자의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다만, 어간이형태, 강세이형태 등의 변이형론 뿐만 아니라, 음운의 변이음론에서도 변이형, 변이음의 분포는 동기화되어 있다는 사실만 지적하고자 한다.¹⁶⁾ 다시 말하면, 어미 이형태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독립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다른 (어휘적, 비어휘적) 요소들인 것이고, 역으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이형태의 분포는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곡용에서 곡용식이라는 격-어미형

14) 이는 Brøndal(1943)의 Principle of Markedness Compensation에 잘 부합된다.

15) 물론, 단수 주격형을 어휘소의 형태론적 특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형태론적) 어휘적 특성으로부터 곡용식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곡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어휘소에 명세하는 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16) Clark(1970)의 “대조원리(Principle of Contrast)”를 이형태론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분포의 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Carstairs-McCarthy(1994)의 제안도 참고). 한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변이형도 존재할 것이다. 본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자의적 이형태들은 “유표적”이며, 따라서 동기화된(즉, 보다 무표적인) 이형태에 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곡용형개신의 원인에 대한 본고의 주장은 Wurzel(1984/1989)의 설명과 상이하다. 이에 대한 정밀한 논의는 다른 논문으로 미룬다.

집합 역시, 독립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다른 요소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요컨대, 단수곡용의 곡용식은, (10)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어휘형(=단수주격형)에 의해서 정의된 곡용류에 의해 (1차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4. 형용사 곡용

러시아어 형용사곡용은 명사곡용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4.1. 성: 자질소 혹은 요인?

2장에서 필자는 성(gender)이 명사곡용에서 자질소의 일부가 아니라, 분포 요인의 하나로 기능함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어 명사의 곡용어미는 격과 수를 표현하는 형태소이며, 성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러시아어 명사가 곡용할 때, 대개 12개의 굴절된 단어를 상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2개의 수*6개의 격=12개의 자질소통합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명사 곡용에 있어서, 성은 오로지 어휘적 분포 요인으로만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 곡용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우선 형용사의 곡용이 가지는 형태-통사론적 의의부터 논의하자. 형용사는 문장에서 핵어(head)-명사의 수식어(modifier)라는 통사적 기능을 수행할 때, 자신이 수식하는 핵어-명사가 가지고 있는 격과 수의 자질소뿐만 아니라, 성의 자질소에서도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합체상(syntagmatic)의 일치(agreement, soglasovanie)를 다루는 이론적 기제는 다양할 수가 있지만,¹⁷⁾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수식어로서의 형용사의 굴절은 자신이 수식하는 핵어-명사의 자질소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17) 일례로 어휘부의 규칙에 의해 생성된 형용사 굴절형 중, 통합체상의 핵어가 가지는 자질소에 일치하는 자질소를 가지는 굴절형이 선택되어 통사구조 상에 삽입된다고 기술할 수도 있고, 통사구조에 삽입된, 굴절 전의 형용사 어휘소가 일치의 통사규칙에 의해 핵어-명사로부터 자질소를 할당받아, 굴절형태론에서 굴절된다(infect)고 기술할 수도 있다(Stump 2001 참고).

만약 수식어-형용사가 핵어-명사의 일치-자질소를 복사하여 자신의 자질소로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수식어-형용사가 보이는 굴절형의 양상과 핵어-명사가 출현하는 통사-의미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자질소를 복사하여 자신의 자질을 가지는지 가추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한 추론의 결과 우리는 적어도 러시아어 형용사가 수식어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은 핵어-명사의 수와 격의 자질소를 복사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전통적인 기술에서도 모두 동의해 온 부분이다.¹⁸⁾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주인데,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핵어-명사의 성범주는, 명사곡용에서처럼, 형용사에서도 분포요인으로만 기능한다(Carstairs-McCarthy 1994, Aronoff 1994 참고).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형용사도 명사처럼 수와 격만을 표현하고, 성에 의해 구분되는 형용사 굴절형들은 오로지 변이형들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 형용사 *nov-ij*, *nov-ojo*, *nov-aja* 의 세 굴절형은 모두 단수주격의 자질소를 표현하는 변이형들이며, 그 분포는 핵어-명사의 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nov-ij*는 핵어-명사가 남성일 때, *nov-ojo*는 중성일 때, *nov-aja*는 여성일 때 나타난다. 복수에서는 모든 격에서 하나의 굴절형만이 출현하기 때문에, 변이형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성은 분포요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용사가 왜 핵어-명사의 격과 수는 일치에 의해서 할당받으면서, 핵어-명사의 성은 할당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 견해가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또한, 형용사 단수곡용에서 성이 분포요인으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성의 세 자질소(남성, 여성, 중성)에 의해 정의되는 세 개의 곡용류를 설정하는 셈이 된다. 명사에서의 곡용류란 명사어간에 통합되는 동일한 곡용어미형의 집합을 공유하는 **명사어휘소**의 집합이라면, 형용사에서의 곡용류란, 형용사어간에 통합되는 동일한 곡용어미형의 집합을 공유하는 **명사어휘소**의 집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명사와 형용사에서 곡용류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곡용류의 정의가 품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형용사 역시, 곡용류를 동일한 곡용어미형의 집합을 공유하는 **형용사어휘소**

18) 그러나 사실은 이부분에 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즉, 형용사의 모든 굴절형은 변이형들이며, 그 분포는 핵어-명사의 성, 수, 격의 자질소들에 의거한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형용사 곡용어미가 표현하는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다.

의 집합으로 정의해야 명사에서의 정의와 평행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사곡용의 이형태가 명사자신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 그 분포요인이 결정 되듯이, 형용사 곡용에서도 그 이형태가 형용사 자신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 분포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면,¹⁹⁾ 곡용류라는 개념은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형용사의 곡용어미는 성, 수, 격의 세 자질소들 모두 표현하는 중첩형태(cumulative morph)로 간주한다.²¹⁾ 다시 말하면, 성은 러시아어 형용사곡용에서 자질소로 기능한다.

4.2. 형용사의 곡용식

러시아어 일반형용사의 굴절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러시아어 일반 형용사의 굴절(수식어의 통사적 역할)

	단수			복수
	남성	중성	여성	
주격	nov-ij	nov-ojo	nov-aja	nov-ije
대격	=주격~생격	=주격	nov-uju	=주격~생격
생격	nov-ovo		nov-oj	nov-ix
처격		nov-om	nov-oj	nov-ix
여격		nov-omu	nov-oj	nov-im
조격		nov-im	nov-oj	nov-im'i

예를 들면, *nov-uju*라는 굴절형에서 곡용어미 *-uju*는 ‘여성, 단수, 대격’이라는 자질소들을 표현한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첫째, 복수곡용에서는 성의 구별은 중화(neutralization)되고, 둘째, 주격과 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격들에서 남성과 중성의 구별이 중화되며, 셋째, 대격에서 ‘활

19) 이점에 대해서는 곧 논의될 것이다. 체코어에서, 형용사 어간 말 자음의 연자음성에 의해 두 곡용류가 설정되는 경우도 그 예로 볼 수 있다.

20)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Zaliznjak(1968), Corbett(1991)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치류(soglasovatel'nyj klass)”를 통한 형용사 굴절형태론 기술에 동의할 수 없다(4.3. 참고).

21) 덧붙여야 할 사항은 이러한 결정은 형용사가 핵어-명사의 자질소를 복사해 자신의 자질소로 삼는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성' 범주가 덧붙여 표현되는데, 단수대격에서는 남성명사와 통합되었을 경우에만, 복수대격에서는 보편적으로 표현된다. 결론적으로, 위의 굴절형들은 성, 수, 격의 세 자질소들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형태소들이며, 한 형태소의 변이형이 아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에서도 곡용어미 이형태는 존재할까? 성, 수, 격 세 자질소는 동일하고, 곡용어미형은 상이한 그러한 경우가 존재할까? 대답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형용사곡용의 이형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동의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현대 표준 러시아어에서 소위 “연변화식”이라는 개념은 허구이다. 이를테면, SINIJ, VEČERNIJ 등의 형용사들은 “연변화”하는 형용사라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도된 음운분석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sinij, sinjaja, sinee>²²⁾은 *s'in'-ij*, *s'in'-aja*, *s'in'-ojo* 등으로 음운분석된다. 즉, 이들은 “연변화”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위의 /novij/와 동일한 곡용어미형을 취하는, 어간말자음이 연자음인 형용사이다.

둘째, BOŽIJ, SOBAČIJ 등의 소위 “물주형용사”는 주격(과 대격)에서 명사의 곡용어미형을 취한다는 점이다. 즉, <božij, sobačij>는 각각 *božij-ø*, *sobačij-ø*로 형태소 분석되며, 어간의 음운 *i*는²³⁾ 출몰모음이다. 이것은 <bož'ja, sobač'ja>, <bož'je, sobač'je> 등의 주격형에서, 각각 *božj-a*, *sobačj-a*; *božj-o*, *sobačj-o* 등으로 형태소 분석되고, 전술한 출몰모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사라지는 사실로 확인된다.

셋째, 소위 “물주형용사”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점이다. 위의 BOŽIJ, SOBAČIJ 등 뿐만 아니라, MAMIN, OTCOV 등도 소위 “(물주)형용사”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들 단어가 명사라고 주장할 근거가 러시아어에서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²⁴⁾ 소위 “소유대명사”(/*moj/ /naš/* 등)에서도 직격에서는 명사처럼 곡용하는데(예: *moj-ø*, *moj-o*, *moj-a*, *moj-i*; 그러나, 사격에서는 *moj-ovo*, *moj-om*, *moj-omu*, *moj-im*), 이들 역시 모두 형용사로 취급되어져

22) < >안의 표기는 문자전사한 것이다.

23) 이러한 종류의 형용사에서 나타나는 출몰모음은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i* 대신에 *e*를 설정해도 무방하다. 한편, 어간 말 *-j-*는 명사 /*bog/*와 /*sobaka/*의 어간에 통합되어 물주형용사 어간을 형성하는 접사이다.

24) 그러나, 고지소르비아어(Upper Sorbian)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명사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Choi(2004) 참고.

야 할 것 같다.

위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인 형용사의 이형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즉, 물주형용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접미사 {-j}를 통합한 물주형용사의 굴절

	단수			복수
	남성	중성	여성	
주격	božij-∅	božj-o	božj-a	božj-i
대격	=주격~생격	=주격	božj-u	=주격~생격
생격	božj-ovo		božj-oj	božj-ix
처격	božj-om		božj-oj	božj-ix
여격	božj-omu		božj-oj	božj-im
조격	božj-im		božj-oj	božj-im'i

물주형용사 접미사 {-j}를 통합하고 있는 (10)의 형용사는 주격과 대격에서 명사곡용어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단/복수 주격과 대격은 이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분포 요인은 물주성(pritjažatel'nost')에 의한다.

한편, 물주 접미사 {-ov}를 가지는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곡용식을 보인다.

(14) 접미사 {-ov}를 통합한 형용사의 굴절

	단수			복수
	남성	중성	여성	
주격	otcov-∅	otcov-o	otcov-a	otcov-i
대격	=주격~생격	=주격	otcov-u	=주격~생격
생격	otcov-a		otcov-oj	otcov-ix
처격	otcov-e(~om)		otcov-oj	otcov-ix
여격	otcov-u		otcov-oj	otcov-im
조격	otcov-om(~im)		otcov-oj	otcov-im'i

접미사 {-ov}를 가지는 물주형용사는 주격과 대격에서 명사곡용어미를 취할 뿐 아니라, 남성과 중성의 자질소를 가질 경우 모든 사격에서도 명사곡용어미를 취한다.²⁵⁾

25) 접미사 {-in}를 가지는 물주형용사(예: *mam'in-*, *Sašin-* 등)은 (10)과 (11)의 곡용식을 바리안트로 가지고 있는데, 대명사의 곡용식이기도 한 (10)은 새로운 변이곡용식이고, (11)은 오래된 변이곡용식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형용사곡용에서 직격에는 두 개의 이형태가 존재한다. 즉, 하나는 형용사 고유의 어미형이고(-*ij*, -*ojo*, -*aja*; -*ije*), 하나는 명사의 격어미형이다(- \emptyset , -*o*, -*a*; -*i*). 이때 이들의 분포는 ‘물주성’에 근거한다. 즉, 명사의 격어미형은 물주형용사에 분포한다. 다시 말해, 직격에서 두 개의 곡용류가 존재한다.

사격의 경우에는, 형용사-수식어가 남성 또는 중성의 자질소를 가질 때, 이 형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형용사 고유의 어미형이고(-*ovo*, -*om*, -*omu*, -*im*), 다른 하나는 명사의 격어미형이다(-*a*, -*e*, -*u*, -*om*). 이들의 분포 요인은 접사 {-*ov*}를 가지는 물주형용사이다. 따라서 사격에서도 두 개의 곡용류를 설정할 수 있다.

4.3. 성범주의 이중성

본고의 논의는 러시아어의 성범주가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명료하게 드러내 보인다. 성범주는 명사곡용에서 곡용어미의 변이형들의 분포를 결정짓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지만, 형용사곡용에서는 곡용어미의 자질소의 일부를 형성한다.

Zaliznjak(1967)은 형용사-수식어의 굴절형태론을 토대로 동일한 (격과 수의) 곡용어미형 집합(=“일치식”이라고 지칭함)을 선택하는 명사어휘류를 “일치류(*soglasovatel'nyj klass*)”로 지칭하고, 이들 일치부류와 성과 활물성과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Corbett(1991)에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Zaliznjak에서 설정된 6개의 일치식 중에, 3쌍(예: /*stol*/ vs. /*brat*/, /*okno*/ vs. /*čudov'iščo*/, /*voda*/ vs. /*s'ostra*/)의 일치식들은 최소한의 자질소들에서만 차이가 날 뿐, 대부분의 자질소들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예를 들면, /*stol*/과 /*brat*/는 단복수 대격에서만 상이한 형용사 곡용어미형을 취한다)에 무게를 싣고, 각각의 쌍에서 곡용어미형의 차이를 가져오는 명사어휘류의 특성을 “활물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3쌍의 명사부류를 “성”으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Corbett의 시각은 기존의 성범주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는데, 그는 성범주를 이루는 세 개의 “성”은 3개의 형용사 일치식을 근거로 해서, 즉, 통사-형태적 형식을 근거로 해서 설정한 것이었다. /*stol*/과 /*brat*/의 일치식을 조건화하는 것은 소위 “남성”이고, /*okno*/와 /*čudov'iščo*/의 일치식을 조건화하는 것은 “중성”, /*voda*/와 /*s'ostra*/를 조건화하는 것은 “여성”으로 정의

한 것이다.

이렇게 통사-형태적으로 정의된 세 개의 명사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의 구성원 요건은, Corbett에 의하면, 명사어휘들의 의미적 특성(즉, 자연적 성sex)과 그들의 곡용류에 의해 할당된다고 주장한다(Corbett 1991:34-37). 물론 명사어휘소가 어떠한 곡용류에 속하는가는 전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Corbett의 성범주에 대한 시각은 필자의 입장과 완전히 대립된다. Corbett는 형용사곡용에서 성범주는 분포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필자는 자질소의 일부로 본다. 형용사곡용에서 성범주를 분포요인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1절에서 상론하였다. 둘째, Corbett는 성범주를 통사-형태적 일치식에 의해서 정의된 명사류로 보는 반면, 필자는 성범주를 어휘소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휘범주로 본다. 필자는 성범주는 명사어휘소들의 의미적 특성(즉, 자연적 성, Jakobson(1960/1971) 참고)과 음운적 특성(C-어휘형, a-어휘형, o-어휘형)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본다. 셋째, Corbett는 명사곡용식에 대응되는, 자의적으로 설정된 곡용류를 매개로 하여(그의 “Morphological Assignment Rules”(Corbett 1991:36)), 형용사 일치식에 의해 설정된 일치류(즉, 성)에 의해 예측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명사곡용의 이형태 분포를 결정하는 자의적 명사부류(곡용류)가 형용사곡용의 이형태 분포를 결정하는 다른 명사부류(일치류, 즉 성)의 구성원 요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필자의 입장은 명사단수곡용의 이형태 분포를 결정하는 곡용류는 어휘소의 음운적 특성(즉, 어휘형) 및 하위 요인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으며, 형용사 곡용을 위해 또 다른 명사부류, 즉 일치류 등을 문법에 설정하지 않는다. 언어기호의 동기화와 “오감의 면도날”이라는 잣대로 보아 본고에서 제안된 기술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논문은 러시아어의 명사와 형용사의 곡용을 이형태 분포론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그 결과, 러시아어 명사곡용시 발견되는 다양한 분포 요인들사이의 계층적 구조를 포착할 수 있었고, 전통적으로 설정된 “곡용식”이 사실은 단수 곡용에만 유효하며, 복수에서는 어떠한 곡용식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

증하였다(2장 참고).

더 나아가, 필자의 기술은 러시아어 명사곡용의 변이형들의 분포는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휘적 특성, 비어휘적 요인들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3장 참고). 이러한 분포의 동기성은 곡용상의 변이형이 가지는 언어기호의 잉여성을 보완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사곡용과 형용사곡용을 비교하면서, 러시아어의 성범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명사곡용에서는 분포 요인의 하나로, 형용사곡용에서는 자질소통합체의 일원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기존에 설정되어온 “일치식”에 의한 일치류, 즉 성의 정의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논증하였다(4장 참고).

참고문헌

- Andersen, Henning(1996) "The Ukrainian Fourth Declension," *Harvard Ukrainian Studies (Special Issue: Ukrainian Philology and Linguistics, ed. by Michael S. Flier)* 18, pp. 154-166.
- Aronoff, Mark(1994) *Morphology by Itself*, Cambridge: The MIT Press.
- Barentová, Vilma et al.(1979) *Russkaja grammatika*, Praha: Academia.
- Brøndal, Viggo(1943)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Copenhagen.
- Carstairs-McCarthy, Andrew(1994) "Inflection Classes, Gender, and the Principle of Contrast," *Language* 70-4, pp. 737-788.
- Carstairs, Andrew(1987) *Allomorphy in Inflexion*, London: Croom Helm.
- Choi, Sung-ho(2004) "'Possessive Adjectives" in Upper Sorbian: Their Syntax and Morphology," *Eoneohag* 39, pp. 3-25.
- Choi, Sung-ho(Ms.) *Declension, Agreement, and Desinential Allomorphy in Inflectional Morphology*.
- Corbett, Greville(1982) "Gender in Russian: An Account of Gender Specific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clension," *Russian Linguistics* 6(2), pp. 197-232.
- Corbett, Greville(1991) *Gen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e, Morris(1994) "The Russian Declension: An Illustration of the Theory of Distributed Morphology," in Jennifer Cole & Charles Kisseberth (eds.), *Perspectives in Phonology*, CSLI 51, pp. 29-60.
- Jakobson, Roman(1957/1971) "The Relationship between Genitive and Plural in the Declension of Russian Nouns," *Selected Writings II*, The Hague: Mouton, pp. 148-156.
- Jakobson, Roman(1960/1971) "The Gender Pattern of Russian," *Selected Writings II*, pp. 184-186.
- Janda, Laura(1996). *Back from the Brink*, München: Lincom Europa.
- RG (*Russkaja grammatika*) (1980) Švedova N. Ju, et al. Moskva: Nauka.
- Stankiewicz, Edward(1968) *Declension and Gradation of Russian Substantives*,

- The Hague: Mouton.
- Stump, Gregory(2001) *Inflection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Švedova N. Ju, et al.(1970) *Grammatika sovermennogo russkogo literaturnogo jazyka*, Moskva: Nauka.
- Swan, Oscar(2002) *A Grammar of Contemporary Polish*, Bloomington: Slavica.
- Timberlake, Alan(2004) *A Reference Grammar of Russi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rth, Dean(1984) "Russian GEN2, LOC2 Revisited," in (ed.) J. J. van Baak, *Signs of Freindship*, Amsterdam: Rhodopi, pp. 295-306.
- Wurzel, Wolfgang Ullrich(1984/1989) *Inflectional Morphology and Naturalness*, Dordrecht: Reidel.
- Zaliznjak, A. A.(1967) *Russkoe imennoe slovoizmenenie*, Moskva: Nauka.
- _____ (1980) *Grammatièeskij slovar russkogo jazyka*, Moskva: Russkij jazyk.

Abstract

Desinence Allomorphy in Russian Substantival and Adjectival Declension

Choi, Sung-Ho

This paper argues that desinence allomorphy should be described in terms of distributional factors rather than in terms of lexical selection of declensional patterns. The approach taken in this paper captures the ranking relation among a variety of distributional factors, which are suggested to be distinguished between lexical and non-lexical factors. Generally speaking, lexical factors outrank non-lexical factors, as shown in the Russian declension. The distribution-based approach also confirms that what has been referred to "declensional pattern" in the Russian declension must apply only to the singular inflection, since the lexical classes corresponding to declension patterns are effective as a distributional factor only for the singular inflection. The desinence allomorphy in the plural inflection does not allow one to establish such declensional patterns as posited for the singular patterns; each case has its own distribution governed by different factors. Finally, on the basis of the claim that gender functions as a factor for substantive declension, whereas it functions as an element of feature-combinations for the adjectival declen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desinence allomorphy in both adjectival and substantival declension should be referred to by gender, which is one of lexical categories defined solely by lexical characteristics. Gender is not a formal(i.e., syntactico-morphological) category that is defined in terms of agreement patterns manifested in the adjectival declension, as suggested in Zaliznjak(1967), Corbett(1991), and many others.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4. 10. 5
논문심사일:	2004. 10. 19~2004. 11. 18
심사완료일:	2004. 11. 20